

사랑하는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주님 안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요란하고 흥흥할수록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께 대한 신뢰가 더욱 든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 1. 멘토링, 총회



6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아프리카선교사총회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자리였습니다. 총회 전반부에는 아름다운교회(김종포목사님)에서 개최한 멘토링세미나를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김목사님을 비롯하여 24분의 교역자와 성도님들이 오셔서 최선을 다해 참석한 선교사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김목사님의 간증과 멘토링 강의는



저희들에게 많은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고, 성도님 한분 한분의 다양하고 귀한 섬김과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의 선물로 저희 모두가 많은 감동을 받았답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주셔서 가족 모두가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김병철목사님과 왕남안목사님 부부의 말씀과 강의, 섬김의 사역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의 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멘토링세미나 이후 이어진 아프리카지부총회는 강한 말씀의 도전과 은혜를 받는 자리였으며 또한 모든 선교사님들이 함께 사역을 나누며 섬김과 사랑의 교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자리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먼길을 오셔서 섬겨주신 김형윤이사장님과 김종식이사님, 김중성이사님, 그리고 이재경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총회에 참석은 못하셨지만 기쁨으로 후원 해주신 유관재총회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 2. 유스캠프 훈련

8월 10일부터 4일간 개최된 유스캠프는 20개 교회에서 약 570명의 청소년이 참석하였습니다. 저희의 동역자인 월슨목사와 니콜라스목사가 강사로 수고를 했으며 특별히 이번에 로버트목사가 합류하여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원근각처에서 온 청소년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재헌신하는 가운데 59명의 청소년들이 새로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답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14명이 말라리아에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청소년 집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청소년들이 바른 진리 위에 믿음을 세워가도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번 유스캠프는 12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진설명:전통복장으로 드리는 특별찬양>



### 3. 광야교회, 고아, 보육원

광야교회는 여러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의 헌신과 성도님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로 독사 등으로 소천한 성도들이 있는 가운데에도 매월 교회마다 꾸준히 새 신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9월 25일부터 일주일간 목회자 합숙훈련이 나레와선교베이스에서 있었습니다. 이후 11월과 내년 1월에 실시될 광야교회목회자합숙훈련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목회자훈련은 거의 8년만에 드디어 케냐침례신학교를 졸업한 저희들의 동역자인 니콜라스목사가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마음을 열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모두를 가르치시도록, 진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서로를 향한 순전한 사랑과 섬김이 충만하기를 기도부탁드립니다. 행정적인 리더십이 이양되듯이 교육적인 리더십도 현지인들에게 이양을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의 헌신으로 고아아이들과 보육원아이들 역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 4. 가족 이야기

저희 둘째 딸 예린이가 이번 총회기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김형윤이사장님이 침례를 베푸셨는데 거세게 몰아친 인도양물결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후 투르카나 나코리오용라학교아이들



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막내아들 현성이 케냐에서 12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드디어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지금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중국에서 1년간 봉사활동을 하는 중입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기도제목>

1. 광야교회가 지속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목회자합숙훈련을 통해 목회자들이 튼튼한 믿음의 기반과 목자의 심정을 갖도록.
2. 투르카나 숙소동 건축이 순조롭도록. 현재 벽돌을 계속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3. 고아아이들과 보육원아이들이 주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윤승주 김경희 선교사 드림

